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056

한글 성명: 21주스

나의 공간.

" 떠는 떠날 거야! 네가 아무 학교에 입학했을 지라도 이 집을 떠나고 말거야!"

" 광 — "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자 점심을 위해 돈 벌러 출근 하려고 엄마는 키득 하셨다. 너 몇 시쯤을 듣기 위해서. 반가운 일일 것 같았지만 사실 엄마가 돌아온 뒤, 집에 다름의 소리는 들지 않고 침을 걸어치고 밖으로 뛰어 나간 나의 경험은 점차 쌓이기 시작 하셨다. 비록 딸과 안 지나면 다시 집에 돌아오지만... 숨이 막혔다. 엄마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자유의 몸이 났다. 놀고 싶은데 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그런데 엄마 때문이 나는 자유를 잃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나만의 공간이 나타나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1056

한글 성명: 리푸스

엄마가 참으로 열미였다, 하지만 10살
 넘었하든 해, 일부러 잠자는 나를 깨우
 지 않게 하기 위해 새벽에 문을 떠 나
 는 엄마를 보내며 이불속에서 눈물을
 펄펄 쏟는 나였건만 ...
 아빠와 헤어진 뒤 남보하 못지 않게
 키우기 위해 준비해 둔 모든 조건들은
~~.....~~ 전부다 엄마의 힘으로 마련
 한 ^한집에 있었다, 엄마에게는 이 집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건만 나에
 게는 "엄마가 없으면 나만의 "세계"
 엄마가 없으면 슬막히는, 모든 탈피하고
 싶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출근이 20살까
 지 되도록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이다 ...
 집을 멀리 떠나려는 파음을 먹은 나
 는 못머로 그 집과 이혼여 권으로 미려
 떨어진 한국에 유학을 왔다. 나는 ^한2
 공간을 벗어 ^초나지만 또 완전히 벗어나
 진 못했다. 왜냐하면 ^한같은 한국이라는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1056

한글 성명: 2학년

땅 위 에 . 있 으 니 까 .
 왜 이 형 게 됐 을 까 ?
 시 간 을 거 슬 러 을 라 간 6 년 전 . 나 는
 제 뜻 더 로 내 가 원 하 는 — 점 이 서 멀리
 떠 어 진 학 교 에 입 학 하 였 다 . 그 때 가 지 만
 해 드 일 의 심 각 성 을 모 른 나 는 희 열 이
 빠 졌 다 . 하 지 만 점 차 시 간 이 갈 수 록 감
 당 할 수 없 는 일 들 이 발생 하 면 서 나 는
 점 차 무 너 지 기 시 작 하 였 다 . 빠 르 수 능 시
 흥 마 치 고 멀리 떠 나 야 했 다 는 생각 으 로
 한 시 의 고 려 도 없 이 학 교 를 선택 한 것
 으 로 내 가 감 당 하 기 어 렵 은 조 능 을 선택
 했 던 것 이 다 . 그 결 과 는 주 성 이 맞 지
 않 으 으 로 포기 상 해 이 빠 지 고 이 어 자 죄
 를 하 였 다 . 참 관 심 하 였 다 , 이 런 내 가 ,
 한 공 간 이 서 다른 세 조 은 , 내 가 " 원 하
 는 " 공 간 이 찾아 들 어 가 면 모든 일 이
 뜻 더 로 풀 린 줄 로 만 알 았 다 니 ...
 가 장 원 차 가 . " 권 이 차 고 " 나 간 집 이
 나 는 다시 들 어 섰 다 . 부 드 러 운 의 소 를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KR1056

한글 성명: 이주인

떠 버서 포근한 품으로 맞이해 주든
 나의 모습에 아직 또 생생하다. 슬퍼한
 무능자라고 자책하는 나를 달래 주며
 내라고 응원해 주는 엄마의 모습은 참
 으로 나를 안심시켰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를 꺼낼 것 같
 았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엄마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집은 엄마가 나
 의 대한 보호막이건만 내가 바라는 건
 엄마의 숨소리가 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외국의 있는 엄마와 떨어져
 살면서 점차 나는 내가 원한 것이 무
 었는지, 숨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엄마의 탓
 으로 했던 것이다. 참 바보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
 었다. 나를 키우기 위해 희생한 엄마를
 보며 그 줄 수가 없었다.
 그러. 엄마가 있는 곳은 나의 집이고,
 그 집은 나를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J022-KR1056

한글 성명: 이주스

왔 는 공 간 이 왔 지 , 더 늦 기 전 이 주 서 하 지
말 고 밤 마 와 함 께 할 수 있 는 시 간 을
아 저 아 했 다 .

너 가 유 각 을 오 드 날 , 비 행 기 좌 석
앞 자 리 이 는 밤 마 가 앉 아 있 었 다 , 나 의
뒷 바 라 지 를 하 러 오 셴 다 고 ,

고 공 이 든 별 궤 도 , 공 간 이 서 원 지 슴
이 막 히 지 쫓 았 던 , 기 막 도 썩 썩 타 다 , 밤
마 가 있 는 공 간 이 죽 음 됐 나 보 다 .